

“선배들 삶의 경험·지식 후배 세대에 나눠요”

‘인생나눔교실’ 멘토 봉사단 호남권 100여명 활동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애벌레가 어떤 느낌인가요?”

지난 2016년 8월 화순 동면중학교 운동장에는 각자 애벌레를 손에 든 학생들이 웅기충기 모였다. 놀라는 학생, 가만히 관찰하는 학생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이날 학교를 방문한 김종남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과 김세진 ‘광주 생명의 숲’ 사무처장은 멘토로 나서 주변 곤충과 나무를 소재로 생명의 소중함을 들려줬다.

같은해 12월 광주 전통문화관 조리실, 광주가정법원 보호청소년들은 이예섭(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회 전통의례음식장) 명인과 음식을 나누며 아쉬운 작별 시간을 가졌다. 첫날 미역국을 만들며 ‘나’의 소중함을 배웠던 청소년들은 한달간 친구, 부모님, 스승을 위한 음식을 배우고 만들었다.

“지금까지 배운 음식은 모두 레시피가

있었다. 음식도 인생도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면 엉망이 되지만 레시피 대로만 만들면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이철재·김후경 멘토는 광주보호관찰소를 찾았다. 청소년들은 멘토들과 느리게 걸으며 절제와 인내를 배웠고 시를 쓰며 생각을 키웠다. 멘토들에게도 누군가의 성장을 미리 한계짓지 말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배움의 시간이었다.

지역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들에게 삶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인생나눔교실’ 현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인생나눔교실’ 멘토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집한 멘토들이 군장병, 중학생,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보호관찰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펼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500명이 약 5000회

군장병·청소년·어린이 등 대상

2년간 1100차례 멘토링 활동

인문·예술 분야 35~50세

은퇴한 51~70세 대상

호남권 46명 24일까지 모집

멘토링을 진행했으며 호남(제주 포함)권은 총 100여명이 약 1100회 멘토링에 참여했다. 지역 주관처로 선정된 광주문화재단은 명인에게 음식을 배우며 인생을 나누는 기획 프로그램 ‘우주여행(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열고 있다.

문광부가 2017 봉사단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멘토링은 지난해보다 약 500회 증가한 3500회를 펼칠 예정이다.

멘토 봉사단은 총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46명씩

230명을 선발한다. 자격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삶을 모색하는 만 51~70세와 인문·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만 35~50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봉사정신이 있거나 멘토 교육 프로그램 이수·소모임 활동이 가능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멘토봉사단’은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통교육을 비롯해 12월까지 심화교육·소모임 활동을 갖는다. 연말까지 총 230개 기관(호남권 50개)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소규모 멘토링’에 참여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지원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life@arko.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739-394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해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에 참여한 성심은 전남대 국악학과 명예교수가 주재 ‘전통악기의 이해, 가야금 이해하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올 상반기 프로그램 확정

4일 하늘땅 두드림 ‘2017 하늘땅 소원 복덕 축원 한마당’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이 올 상반기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토요일상설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첫 무대는 오는 4일 오후 3시 ‘하늘땅 두드림’(대표 이민영)을 초청해 열리는 ‘2017 하늘땅 소원 복덕 축원 한마당’(사진)으로 한해 동안의 안녕과 행운을 비는 축원의 자리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일년 무사안일과 소원을 빌어주는 터울리마당 ‘뽕자 밭자 무등타’를 시작으로 희망을 담아 관객 모두의 행운을 기원하는 전통무용 ‘오방축원 지전무’를 선보인다. 이어서 ‘소리잔치상’, 도악의 시작을 알리는 복놀이 ‘남도의 흥 북춤’과 축원의 의미와 복을 부르는 ‘소원

풀이 난타’로 재미와 볼거리를 더할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북과 모듬북, 장구, 팽과리가 어우러져 신명나는 ‘무등 질주 타(타)’로 이날 공연을 마무리 한다.

‘하늘땅 두드림’은 전통 타악 대중화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창단했다. 광산농악 이수자 등 30여 명의 회원이 학교 국악예술강사 및 소외계층 문화나눔 공연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이민영, 최미령, 류은경, 장순량, 전미희, 이자경 씨가 출연한다. 문의 062-232-1595.

◇2017 상반기 토요일상설 공연

▲11일 ‘대보름에 울리는 풍악소리’(터울리전통예술원) ▲18일 ‘신명나는 짬이의 정’(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 ▲25일

‘재즈(Jazz)와 국악의 어울림 in 전통문화관’(강운숙의 재즈여행) ▲3월11일 ‘가야금과 떠나는 예술여행’(신영숙) ▲3월18일 ‘판소리 다섯바탕전 5인5색’(4한국판소리보존회) ▲4월1일 ‘봄날의 풍류’(가야금명창단 ‘현의노래’) ▲4월8일 ‘흔적이곳(환생)·씻김굿’(한국지방HR문화교육원) ▲4월22일 ‘연희야 놀자~’(풍물연희예술단 ‘광대’) ▲5월6일 ‘명인·명창이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한민족전통예술연구위원회) ▲5월13일 ‘굿패 풍물잔치’(풍물놀이 한마당) ▲6월3일 ‘우리의 전통, 우리의 탈춤’(퓨전국악 소름) ▲6월10일 ‘루트머지 4인4색’(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6월24일 ‘우리춤으로 전하는 우리가라’(정민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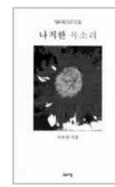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회 병리 현상 질타하고 일상의 소소한 모습 관조

이보영 시조집 ‘나직한 목소리’

동화연구가이자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보영 시인이 두 번째 시조집 ‘나직한 목소리’(고요아침)를 펴냈다.

2009년 이후 8년 만에 발간한 작품집에는 현대사회의 폐해와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시조라는 장르가 포섭하기에는 버거운 소재들이 특유의 목소리로 형상화돼 있다. ‘명예퇴직’, ‘비정규직’, ‘노숙자’ 등의 시조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사회의 병리를 바라보는 다른 시조뿐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모습을 깊은 눈으로 바라본 작품들도 있다. ‘경칩에 들다’, ‘내 마음의 경계선’, ‘어머니의 손’, ‘슬픈 미소’ 등은 잊고 사는 우리네 삶의 이면을 서정적인 어조로 형상화한 시조들이다.

“덜 여문 씨알들도 제 갈 길 찾아가는 정규직”, “노숙자” 등의 시조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표제작 ‘나직한 목소리’는

단조로운 일상 이면에 드리워진 아픔과 고독의 심상을 노래한다. 현실과 상상, 서정과 서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작법에는 오랫동안 창작에 몰두한 이의 시선이 느껴진다.

해설을 쓴 이지엽 시인은 “이보영 시인은 늘 새로운 충격을 찾아 노력하는 시인이다. 시조가 갖는 한계성에 도전한다. 그래서 시조단에 가끔 충격을 던져준다. 이번 시집에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평한다.

한편 해남 출신 이보영 시인은 2002년 ‘시조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전남문화상과 전남예술상을 수상했다. 국제PEN광주시조분과위원장, 열린시조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화가 주홍 ‘공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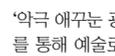
건축사 박홍근 ‘건축이 도시의 경쟁력이다’

광주예총 ‘예술광주’ 발간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발간하는 잡지 ‘예술광주’ 가을·겨울호(통권 59호)가 나왔다.

이번호 기획에서는 잡지 편집위원들의 필리핀 여행을 담은 ‘콜라보레이션’과 ‘공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화가 주홍), ‘건축이 도시의 경쟁력이다’(건축사 박홍근)를 다뤘다.

‘그 사람-이 세상 선생님’ 코너에서는



‘악극 애꾸눈 광대’를 통해 예술로 시대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또 ‘공연예술 즐기기’에서는 나은영 무용가가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U(우)리랑’에 대한 생각과 한국 라인댄스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들려준다. 송지나 작곡가는 지난해 11월 장단 음악회를 가진 푸른솔 시민 합창단을 만나봤다.

‘그 사람-이 세상 선생님’ 코너에서는 사진작가 강경숙씨가 부탄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은둔의 땅에서 미래를 보다’도 게재했다.

이번 ‘숨은 예술가 찾기’ 주인공은 내면을 성찰하는 화가 이선영씨와 공무원 사진작가 안길열씨이고 ‘인문학 논단’은 한두교를 살핀다.

‘아트&아티스트’ 코너에서는 김기범·박수만·윤해옥·장용림·전현숙씨 등의 그림을 실었다. 정숙인 편집위원은 ‘몸, 그리고 젠더문화’에 대한 칼럼을 통해 앞을 거리를 더했다. 그밖에 ‘아트 페스티벌’, 시민예술대학 등 지난 1년간 광주예총 활동과 10개 협회 소식도 담았다. 문의 062-528-92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 새끼는 내가 먹여 살린다!

아제 감성드와르

아빠本色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

주영훈 YoungHoon Joo

김구라 Gura Kim

이한위 HanWi Lee

CHANNEL